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4호 현대불교
2010년 7월 28일(음 6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항상 자기 뿌리를 믿고 생활을 교재 삼아 공부하세요

스님과의 공부 인연이 궁금합니다

☞ 스님, 마음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이 공부 안 했더라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의 인연에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청법가를 부를 때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란 가사 대목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오는데, 스님과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무척 궁금합니다. 한 말씀 알려 주십시오.

☞ 우리가 과거로부터 부처님 도량에 인연이 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한 철 이렇게 도반으로 만난 것도 수억 겁을 거쳐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천 년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도리는 완행 코스가 아니라 직행 코스입니다. 자기라는 그 근본은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보석과도 같은, 수억 겁을 거쳐서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온 당사자입니다.

불성이라는 말은 정말이지 여러분의 보배인 것이며, 그 보배로 인해서 수억 겁을 거쳐서 진화해 오면서 살아온 그 모습들이 우리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축소돼서 그렇게 들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보여 주는데도 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의 의식이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그냥 헛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에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하지만, 자기가 살아나온 거는 바로 정수에 입력이 돼서 그것이 영원하게 세세생생을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가 어렵다고 늦추지 마시고 항상 자기 뿌리를 믿고 생활을 교재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기 뿌리가 즉 불성입니다. 그 불성으로 하여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을 자기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부모도 돼 보고 자식도 돼 보고 형제도 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인연이 돼서 서로 도반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님이 없고 내 아픈 아님이 없으니 들로



그림 · 최주현

보지 마라.' 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엉덩이를 보면 꼬지 떨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겪어 온 그 진화된 모습의 자취들이 우리 몸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습니다. 축소가 돼서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모습과 의식들을 다 주인공에다가 합치면 그 모습들이 전부 화해됩니다. 보살로 화해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생각을 하면 그 의식들이 다 따라 주고 보살로서 화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약사보살이 되고 또는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관세음이가 돼 주고, 또 좋은 데로 가지 못하게 되면 지장이 돼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 면으로, 주산신도 되시고 주해신도 되시고 여러 가지로 보살로 화

해서 여러분을 이끌면서 여러분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세세생생을 살아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진화해서 나온 구멍도 거기고 앞으로 들어갈 구멍도 거기고, 지금 이승 저승 교차로가 바로 그 구멍, 그 구멍밖엔 없습니다. 구멍이라고 그러는 것도 방편이지만 그것을 화합해서 조복 받기 위해서는 구멍 없는 구멍에다 다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털구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뜻이 너무 광대하고 무뎠어서 안 보이는 데서 모든 것을 조절해서 나가는 그 광대하고 무뎠은 묘법이 이렇게 우리 현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공부는 한 철 이렇게 살면서 세세생생을 내다보고 위로는 조상에 대하여 아래로는 자식들을, 자기가 벌여 놓은 모든 것을 다 회향하도록 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같이 하시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짐승으로, 짐승으로 진화해서 사람까지 진화가 돼서 이렇게 사람으로 많이 변창하고 그랬는데 또 선신으로서는 진화가 못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모든 여러 생물들도 자유스럽게 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참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밟고 밀고 넘어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외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님을 뵈고 참 행복한 수행생활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만 먼 데 따로 떨어져서 스님을 한 번도 뵈지 못하고 외롭게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해외 불자들을 위해서 대자비의 한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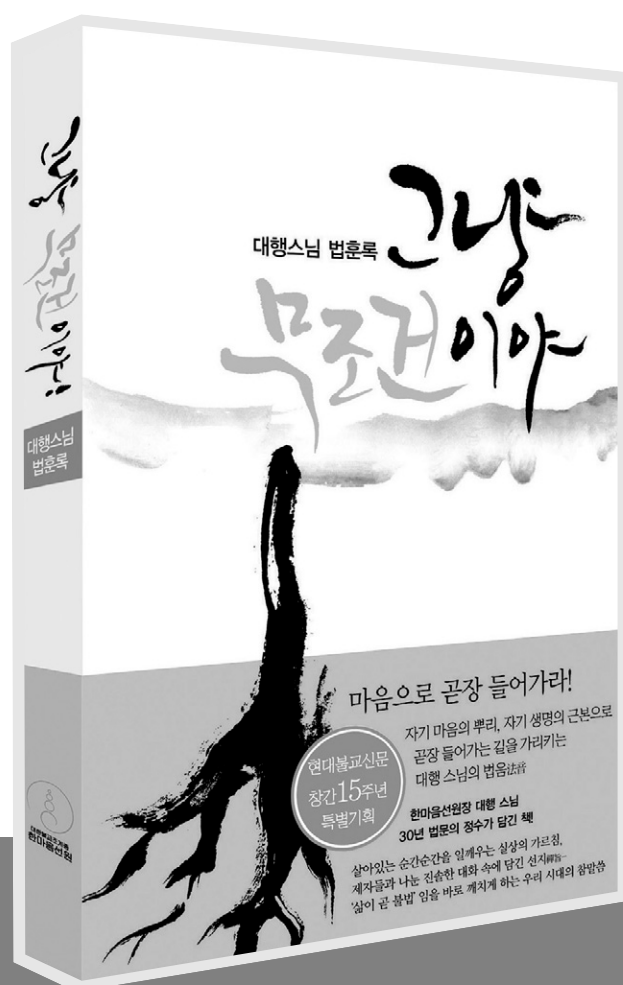
☞ 아니, 지금은 해외든 한국이든, 인터넷도 있고 방문 테이프도 다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들으세요. 그리고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게 아니요 가깝게 있어도 가깝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당,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자리다. 그래서 "부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니 "나는 나온 세가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죽어 가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 가고 탄생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 탄생해요. 왜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자리로 가겠습니까? 딴 자리가 있나요?

중생들이나 부처 찾지 부처들이 부처를 찾습니까? 둘이 아닌데, 중생도 둘이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마음내는 데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마음내는 데로 인해서, 내면의 그 모든 인과로 인해서 생긴 자기 중생들이 바로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이 대기권을 다 커버해 주고,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처럼 들고 내는 데 손색이 없이 통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을 받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 도리를 아시란 얘기죠.

아니, 그렇게 다 해 놔는데 좋은 말을 어떻게 더 하렵니까? 나는 그전에 그랬죠.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 놔는데 하도 부처님한테 매달리기에 부처님을 그냥 도끼로 때려부숴. "그것 좀 내와!" 아, 그래 부수니까 아이고, 부처님 부순다고 야단이지요. "이건 쇠야!"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 그 의식을 떼어 내면 그건 쇠죠. 나무로 만든 거는 내가 그 의식만 떼어 내면 그냥 나무예요. 사람도 의식만 빼내면 그냥 송장이 되죠.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들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음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